

상담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홍 수 현 최 해 립
서강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의 전반적 과정 및 궁극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단계의 상담 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상담협력관계 수준이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봄으로써 상담자 교육과 관련해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태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상담자의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았고, 상태불안은 낮았으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은 높았다; (3)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상태불안보다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4) 내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는 상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과 상담자-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간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상담은 내담자들의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돕는 활동으로, 상담자-내담자 양자간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고 유지될 때 성공적일 수 있다.

* 본 연구는 후기 필자(최해림)의 지도로 선기 필자(홍수현)가 서강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연구(2001년)를 바탕으로 한 것임.

상담성과와 상담협력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상담협력관계의 질이 상담성과의 유의미한 예언변인이며(Marziali, Marmar, & Krupnick, 1981; Hartley & Strupp, 1983; Luborsky, Cris-Cristoph, Alexander, Margolis, & Cohen, 1983; Marmar, Horowitz, Weiss, & Marziali, 1986; Horvath & Greenberg, 1989), 특히 상담의 전반적 과정 및 궁극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인 상담 초기에 중요하다(Horowitz, 1984)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상담협력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Mallinckrodt & Nelson, 1991; 윤경자, 1993; 김남희, 1994; 강혜영, 1995); (2) 내담자의 상담 전 특성(Moras & Strupp, 1983; Luborsky et al, 1983; Ryan & Cicchetti, 1985; Marmar et al, 1989; Kokotovic & Tracey, 1990; Pipher, Azim, & Joyce, 1991; 김순진, 1998; 조영주, 1998; 김순영, 1999); (3) 상담자의 기술적 행위(Forman & Marmar, 1985; Kivilghan, 1990; Reandean & Wampold, 1991; 방기연, 1991; Kivilghan & Schmitz, 1992; 김선경, 1992; 김동민, 1993; 김지은, 1994).

국내의 경우 상담자 특성보다는 내담자 특성과 상담협력관계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경력 수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상담자가 갖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좀 더 미시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상담자 경력 수준과 상담 성과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Strupp, 1958; Pope, Nudler, Norden, & McGee, 1976).

따라서 상담자 경력수준과 상담성과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제3의

변인에 의해 관계가 매개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담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과 상담자 경력수준 간의 관계에서도 매개변인의 작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상담자 경력수준에 따라 상담협력관계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낸다면 그것은 상담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 같은 변인들이 매개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을 상담자의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설정하고, 상담초기 단계에서 이 두 가지 변인들이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 상태불안, 상담협력관계 수준이 상담자 경력수준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특정 상황에서 성취에 필요한 하위기술들을 조직,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77, 1982, 1986, 1997). 자기효능감을 상담과정에 적용시킨 선행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이 상담 수련생의 수행수준(Friedlander, Keller, Peca-Baker, & Olk., 1986), 훈련수준(Sipps, Sugden, & Faiver, 1988), 유능성(Ridgway & Sharpley, 1990)과 정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Johnson, Baker, Kopala, Kiselica와 Thompson(1989), Sharpley와 Ridgway(1993)는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이 상담 수련생 훈련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Larson, Suzuki, Gillespie, Potenza, Bechtel과 Toulouse(1992)는 상담장면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상담자 자기평가 척도(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를 개발하고,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수행수준, 자기개념(self-concept), 문제해결 평가와 각각 정적 상관이 있

음을 입증해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상담협력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상담협력관계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불안(anxiety)을 상담장면에 적용시킨 연구들은 내담자의 불안수준과 상담과의 관련성 연구(Pope & Siegman, 1970; 이장호, 1974; 윤관현, 1983; 정은정, 1991), 그리고 상담자의 불안수준과 상담과정 및 성과 간의 관련성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상담자 불안수준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감수준(Bergin & Jasper, 1969; Bergin & Solomon, 1970), 상담계획 수립 능력(Friedlander et al., 1986), 상담 효율성(Nutt-Williams, Judge, Hill, & Hoffman, 1997)이 상담자의 불안수준과 부적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상담자의 불안수준과 상담자가 상담회기 중에 하는 혼자말 또는 내적 언어에 관한 연구들(Ellis, 1962; Goldfried & Sobocinski, 1975)은 불안과 관련된 혼자말을 주로 하는 상담자들은 자기평가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상담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긴장감과 걱정이 수반되는 일시적 정서상태로 정의되는(Spielberger, 1972)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상담협력관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자의 경력수준에 따른 상태불안과 상담협력관계 차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과 상담협력관계 간의 관계, 경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각각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담협력관계 예측에 있어서 이들 변인들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간의 직·간접 효과와 인과관계를 밝혀보려고 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초기단계에서의 상담협력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따라, 3~6회기 사이의 상담을 진행중인 상담자-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3개의 질문지(상담협력관계 평가 질문지,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 상태불안 검사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한 문항이라도 답하지 않았거나 중복된 답을 한 경우, 그리고 해당 회기가 아닌 데 질문지를 작성한 경우를 제외, 총 68쌍의 상담자-내담자가 연구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상담자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 상담개월수, 상담시간수, 수퍼비전 받은 횟수의 평균은 각각 34.25세(SD=5.71), 52.70개월(SD=5.71), 758.05시간(SD=1270.37), 62.77회(SD=70.69)로 나타났다.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25.1세(SD=8.16)였고, 상담 받기를 원하는 문제영역은 성격·행동·습관, 친구·대인관계, 가치관·삶의 의미, 진로적성, 이성·성, 가족·친지관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위해 2000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 지역의 11개 대학상담소 및 10개 상담기관들(청소년 상담원 등 국가 기관 및 사설 상담소)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책임자 또는 실무 담당자에게 연구내용과 질문지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참여를 의뢰하였고, 총 170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내담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참여 요청 절차는 각 상담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질문지 작

성은 상담 직후에 실시되었으며, 질문지의 작성 내용이 서로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는 질문지 작성 후 별도로 준비된 봉투에 자신이 직접 넣어 봉하도록 했다. 질문지 배부 약 1개월 이후인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총 78부의 질문지가 연구자에 의해 직접 회수되었거나 또는 우편으로 회수되었다.

3. 측정도구

(1) 상담협력관계 평가 질문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각기 지각한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협력관계 평가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 WAI)를 사용하였다. Bordin(1979)의 이론에 기초하여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제작한 본 검사도구는 목표합의(goal agreement), 과제동의(task agreement),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 등 3개 하위요인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정도에 따라 1~5의 점수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협력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상담자용, 내담자용, 관찰자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방기연(1992)의 연구에서 변안된 상담자용과 내담자용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 69명을 대상으로 측정된 상담자용 WAI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며, 3개 하위요인 목표·과제·유대 차원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각각 .86, .77, .84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담자 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담자용 WAI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이며, 목표·과제·유대 차원에서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각각 .83, .85, .88로 나타났다.

(2)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

상담장면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한 상담자의 자신감 즉, 상담자로서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자기평가 질문지(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COSE)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국내에서는 본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연구자가 질문지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고, 상담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로 20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고 있고 상담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담심리 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한국어와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 유학생에게 다시 영역하는 작업을 거쳤다. 변안 작업을 마친 후 1차 질문지를 작성하여 상담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5명에게 직접 응답해 보도록 한 후 수정작업을 거쳐 다른 4명에게 다시 응답해 보도록 하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형태로 작성하였다.

Bandura(1977, 1982, 1986, 1997)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기초하여 Larson과 공동연구자들(1992)에 의해 개발된 본 검사도구는 세부 상담기술(microskills), 상담과정(counseling process),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dealing with difficult client behavior),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cultural competence), 가치에 대한 자각(awareness of values) 등 상담자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5개 하위요인의 총 37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의 6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Larson과 공동연구자들(1992)이 상담자 21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본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그리고 5개 하위요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세부 상담기술 .88, 상담과정 .87, 어려운 내담자 행

동 다루기 .80,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 .78, 가치에 대한 자각 .62로 각각 나타났다.

상담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력수준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요인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일관되지 않은 요인구조를 보이는 관계로 선행연구의 요인구조를 따르기로 했다. 본 연구대상에 적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96으로, 그리고 5개 하위요인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세부 상담기술 .92, 상담과정 .92,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 .83,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능력 .69, 가치에 대한 자각 .25로 각각 나타났다. 가치에 대한 자각 척도의 내적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4개 하위요인의 요인점수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했다.

(3) 상태불안 검사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와 공동연구자들(1983)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한덕웅·이창호·탁진국(1993)이 한국어판 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정도에 따라 1~5의 점수범위를 갖는 Likert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불안이 아니라, 상담이라는 특정 상황에서의 불안 즉, 상담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불안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태불안 측정에 해당되는 하위척도(STAI-S)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목적에 맞게 검사도구 원본의 지시문을 약간 수정하여 사용한 선행연구들

(Kelly, Hall, & Miller, 1989; Hayes & Gelso, 199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금 나는 ...하게 느낀다”를 “상담자로서 지금 나는 ...하게 느낀다”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결과 및 해석

1.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과 상담자 및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과 상담자·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총점에서는 물론이고 하위요인별로도 $p < .01$ 수준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담자의 상태불안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또한 총점에서는 물론이고 하위요인별로도 $p < .01$ 수준으로 매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와는 총점에서는 $p < .05$ 수준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하위요인별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이 유능성, 문제해결 평가, 수행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입증한 선행연구들(Friedlander et al., 1986; Sipps, Sugden, & Faiver, 1988; Ridgway & Sharpley, 1990; Larson et al., 199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담자의 상태불안 또한 상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와 $p < .01$ 수준으로 매우 유의미한 부적 상관

표 1.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과 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간의 상관

	상담자		WAI		내담자		WAI	
	총점	목표	과제	유대	총점	목표	과제	유대
COSE 총 점	.74**	.56**	.75**	.65**	.17	.11	.19	.15
세부상담기술	.72**	.55**	.77**	.61**	.15	.06	.20	.13
상담과정	.70**	.55**	.68**	.61**	.19	.14	.17	.17
어려운 내담자	.64**	.47**	.64**	.58**	.18	.13	.19	.15
문화적 차이	.47**	.31**	.50**	.45**	.03	.01	.10	-.01
STAI-S	-.75**	-.62**	-.52**	-.74**	-.25*	-.17	-.23	-.24

* p<.05 ** p<.01 (2-tailed)

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상담자의 불안수준이 상담과정 및 성과와 관련하여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들(Bergin & Jasper, 1969; Bergin & Solomon, 1970; Friedlander et al., 1986; Nutt-Williams et al., 1997)과 일치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협력관계의 경우, 자기효능감과는 전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상태불안과는 상담협력관계 총점에서 p<.05 수준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하위 요인별로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상담협력관계를 상담자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라는 상담자 특성과 관련해서만 살펴본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상담장면에서의 협력관계 지각에 있어서 상담자가 내담자보다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2. 상담자 경력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상태불안 차이

상담자 경력요인을 학위, 상담년수, 상담시간수, 슈퍼비전 받은 횟수 등으로 나누어 자기효

능감 및 상태불안 수준이 경력수준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2~5 참고).

그 결과,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높아졌다. 특히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와 문화적 차이 다루기 차원은 모든 경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뚜렷이 나타냈다. 상태불안은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평균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상담년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상담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이 훈련 수준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따라서 상담 수련생훈련에 있어서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선행 연구결과들(Sipps, Sugden, & Faiver, 1988; Johnson et al., 1989; Larson et al., 1992; Sharpley & Ridgway, 1993), 그리고 상담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불안과 기본적인 상담기술 구사 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들(Friedlander et al., 1986; Baker, Daniels, & Greeley, 1990; Hill & Corbett, 1993; Nutt-Williams et al., 1997)을 지지하는 것이다.

표 2. 학위에 따른 자기효능감 · 상태불안 차이

	학		위		F
	석사과정	석사수료 및 석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및 박사	
COSE 총 점	3.59(.52) ^{b1)}	3.96(.54) ^{ab}	4.28(.59) ^a	4.28(.59) ^a	4.63 ^{**}
세부상담기술	3.96(.54) ^a	4.20(.54) ^a	4.40(.49) ^a	4.45(.59) ^a	2.44
상담과정	3.38(.73) ^b	4.04(.64) ^{ab}	4.28(.83) ^a	4.22(.83) ^a	3.83 ^{**}
어려운 내담자	3.25(.71) ^b	3.48(.62) ^{ab}	4.01(.60) ^a	4.03(.50) ^a	6.40 ^{**}
문화적 차이	3.63(.69) ^b	3.92(.69) ^{ab}	4.38(.66) ^a	4.34(.66) ^a	4.02 ^{**}
STAI-S	2.93(.30) ^a	2.65(.60) ^a	2.52(.51) ^a	2.53(.48) ^a	1.79

** p<.01 (2-tailed)

¹⁾은 각 하위변인별 개별비교(Scheffe 검증) 결과이며, 같은 문자를 공유하고 있는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의 쌍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상담년수에 따른 차이

	상 담 년 수			F
	1년 미만	1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COSE 총 점	3.79(.56) ^{b1)}	3.87(.46) ^b	4.55(.49) ^a	14.16 ^{**}
세부상담기술	4.06(.61) ^b	4.07(.40) ^b	4.72(.45) ^a	13.02 ^{**}
상담과정	3.77(.74) ^b	3.80(.68) ^b	4.59(.70) ^a	9.13 ^{**}
어려운 내담자	3.35(.68) ^b	3.60(.56) ^b	4.19(.48) ^a	11.00 ^{**}
문화적 차이	3.82(.78) ^b	3.90(.61) ^b	4.56(.59) ^a	7.96 ^{**}
STAI-S	2.83(.45) ^b	2.71(.50) ^{ab}	2.38(.55) ^a	4.18 ^{**}

** p<.01 (2-tailed)

표 4. 상담시간수에 따른 차이

	상 답 시 간 수			F
	100시간미만	100시간이상 1000시간미만	1000시간이상	
COSE 총 점	3.71(.60) ^{bl}	3.93(.42) ^b	4.47(.43) ^a	8.71 ^{**}
세부상담기술	4.00(.64) ^b	4.13(.34) ^b	4.65(.45) ^a	6.80 ^{**}
상담과정	3.68(.80) ^b	3.87(.64) ^{ab}	4.45(.63) ^a	4.63 ^{**}
어려운 내담자	3.29(.65) ^b	3.66(.49) ^b	4.15(.37) ^a	9.54 ^{**}
문화적 차이	3.64(.69) ^b	3.95(.64) ^b	4.54(.50) ^a	7.47 ^{**}
STAI-S	2.74(.54) ^a	2.72(.52) ^a	2.53(.40) ^a	.80

** p<.01 (2-tailed)

표 5. 슈퍼비전 받은 횟수에 따른 차이

	수 퍼 비 전 횟 수			F
	20회미만	20회이상 100회미만	100회이상	
COSE 총 점	3.86(.56) ^{bl}	4.13(.50) ^a	4.21(.67) ^a	1.93
세부상담기술	4.11(.62) ^a	4.30(.45) ^a	4.42(.57) ^a	1.42
상담과정	3.90(.76) ^a	4.09(.70) ^a	4.15(.88) ^a	.52
어려운 내담자	3.42(.57) ^a	3.83(.57) ^a	3.91(.64) ^a	3.69 [*]
문화적 차이	3.76(.65) ^a	4.21(.60) ^a	4.29(.81) ^a	3.29 [*]
STAI-S	2.68(.53) ^a	2.60(.48) ^a	2.65(.60) ^a	.12

* p<.05 (2-tailed)

3. 상담자 경력수준에 따른 상담협력관계 차이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표 6~9 참고).

상담자 경력수준에 따라 상담자와 내담자가

표 6. 학위에 따른 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 차이

	학		위		F
	석사과정	석사수료 및 석사	박사과정	박사수료 및 박사	
상담자WAI					
총 점	3.74(.26) ^{b1)}	3.90(.35) ^{ab}	4.10(.38) ^{ab}	4.05(.41) ^a	2.77 [*]
목표합의	3.63(.34) ^a	3.79(.46) ^a	3.95(.50) ^a	3.96(.47) ^a	1.59
과제합의	3.73(.34) ^b	3.81(.35) ^b	4.08(.34) ^a	4.06(.46) ^a	3.22 [*]
정서유대	3.85(.35) ^a	4.07(.40) ^a	4.27(.40) ^a	4.15(.47) ^a	2.21
내담자WAI					
총 점	3.90(.37) ^a	3.97(.42) ^a	4.06(.39) ^a	3.92(.38) ^a	.40
목표합의	3.78(.38) ^a	3.96(.43) ^a	3.97(.50) ^a	3.80(.46) ^a	.83
과제합의	3.85(.51) ^a	4.00(.55) ^a	4.13(.31) ^a	4.05(.37) ^a	.82
정서유대	4.01(.40) ^a	3.95(.54) ^a	4.07(.41) ^a	3.92(.42) ^a	.32

* p<.05 (2-tailed)

표 7. 상담년수에 따른 차이

	상	담	년	수	F
	1년 미만	1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상담자WAI					
총 점	3.80(.32) ^{b1)}	3.90(.33) ^b	4.18(.39) ^a		6.64 ^{**}
목표합의	3.64(.48) ^b	3.81(.43) ^{ab}	4.08(.42) ^a		4.90 ^{**}
과제합의	3.70(.36) ^b	3.83(.33) ^b	4.21(.34) ^a		11.61 ^{**}
정서유대	4.01(.34) ^a	4.02(.40) ^a	4.27(.48) ^a		2.62
내담자WAI					
총 점	4.02(.41) ^a	3.89(.39) ^a	4.01(.37) ^a		.79
목표합의	3.92(.44) ^a	3.85(.42) ^a	3.92(.46) ^a		.21
과제합의	3.98(.50) ^a	3.90(.49) ^a	3.98(.42) ^a		1.62
정서유대	4.10(.45) ^a	3.90(.49) ^a	3.98(.42) ^a		1.00

** p<.01 (2-tailed)

표 8. 상담시간수에 따른 차이

	상	담	시	간	수	F
	100시간미만	100시간이상 1000시간미만		1000시간이상		
상담자WAI						
총 점	3.84(.33) ^{b1)}	3.87(.35) ^{ab}		4.14(.24) ^a		3.75 [*]
목표합의	3.77(.47) ^a	3.74(.48) ^a		4.04(.26) ^a		1.99
과제합의	3.73(.34) ^b	3.84(.32) ^b		4.19(.33) ^a		7.28 ^{**}
정서유대	3.98(.38) ^a	4.01(.43) ^a		4.22(.30) ^a		1.55
내담자WAI						
총 점	3.98(.47) ^a	3.95(.37) ^a		4.06(.34) ^a		.33
목표합의	3.84(.47) ^a	3.88(.50) ^a		4.00(.37) ^a		.46
과제합의	3.96(.59) ^a	4.00(.45) ^a		4.21(.29) ^a		1.06
정서유대	4.07(.50) ^a	3.95(.41) ^a		4.01(.42) ^a		.35

* p<.05 ** p<.01 (2-tailed)

표 9. 수퍼비전 받은 횟수에 따른 차이

	수	퍼	비	전	횟	수	F
	20회미만		20회이상 100회미만		100회이상		
상담자WAI							
총 점	3.92(.33) ^{a1)}		3.98(.37) ^a		3.99(.39) ^a		.24
목표합의	3.85(.44) ^a		3.83(.47) ^a		3.88(.41) ^a		.05
과제합의	3.83(.43) ^a		3.93(.30) ^a		4.07(.44) ^a		1.62
정서유대	4.03(.35) ^a		4.16(.47) ^a		4.06(.46) ^a		.51
내담자WAI							
총 점	3.98(.42) ^a		3.91(.35) ^a		3.98(.33) ^a		.21
목표합의	3.91(.41) ^a		3.83(.43) ^a		3.94(.45) ^a		.33
과제합의	3.91(.51) ^a		4.07(.32) ^a		4.10(.41) ^a		1.13
정서유대	4.08(.46) ^a		3.87(.45) ^a		3.92(.32) ^a		1.32

표 6~9를 보면, 슈퍼비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아졌다. 특히 과제합의 차원은 모든 경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뚜렷이 나타냈다. 그러나,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모든 경력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흐름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상담자 훈련수준에 따라 상담협력관계 하위요인인 과제 및 목표합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선행 연구결과들(Mallinckrodt & Nelson, 1991; 윤경자, 1993; 김남희, 1994; 강혜영, 1995)과 일치한다. 회기 내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는 활동이 상담목표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동의인 과제합의 차원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능력과 더불어 시기 적절한 구체적인 개입능력이 요구된다. 즉, 상당한 훈련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 비해 상담자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높아지는 것으로 추론된다.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관된 흐름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상담자의 경력요인은 내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보다는 상담자의 상담협력관계 지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강혜영(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력이 낮은 경우 상담자 자신은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하는 것에 비해 내담자는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상담자 경력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 수준의 변화와 관련지어 보면, 초급 경력자일수록 상담협력관계 지각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 간의 직·간접효과 및 인과관계

첫째,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과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간의 유의미한 상

표 10. 상담자 WAI에 대한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및 상태불안 다중회귀분석

	β 계수(t-value)			
	WAI 총점	목표합의	과제합의	정서유대
COSE				
세부상담기술	.23(1.81)	.09(.54)	.77(9.72 ^{**})	.06(.48)
상담과정	.39(4.25 ^{**})	.28(2.39 ^{**})	.19(1.47)	.13(1.04)
어려운내담자	.19(1.80)	.07(.52)	.18(1.63)	.27(2.93 ^{**})
문화적 차이	-.06(-.59)	-.17(-1.27)	.10(.99)	.04(.39)
STAI-S	-.51(-5.60 ^{**})	-.45(-3.86 ^{**})	-.03(-.32)	-.60(-6.53 ^{**})

** p<.01 (2-tailed)

관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예측에 있어서 이들 변인들이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을 알아보았다. 상담자 WAI를 종속변인으로, 상담자 자기효능감 하위요인과 상태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순차적(stepwise)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각 변인들은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전체 및 하위요인들에 대해서 표 10에 제시된 것과 같은 β 계수(t-value)를 보이며 + 또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 WAI 전체에 대해서는 상태불안($t=-5.60, p<.01$)과 상담과정($t=4.25, p<.01$)이, 목표합의 차원에 대해서는 상태불안($t=-3.86, p<.01$)과 상담과정($t=2.39, p<.01$)이, 과제합의 차원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기술($t=9.72, p<.01$)이, 정서유대 차원에 대해서는 상태불안($t=-6.53, p<.01$)과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t=2.93, p<.01$)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면서 직접 효과가 큰 변인들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자의 자기효능감·상태불안·상담자-내담자 상담협력관계 각 변인들간의 직·간접 효과를 규명하고,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구조(causal structure)를 파악하기 위해서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해 보았다. 그림 1은 경로분석을 위해 설정한 구조모형이고,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면,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은 모두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직접 효과는 자기효능감($\gamma_{21}=.43, p<.01$)이 상태불안($\beta_{21}=-.37, p<.01$)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 상태불안을 거쳐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29(\gamma_{11} * \beta_{21}, p<.01)$ 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의 직접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상담자 및 내담자가 각기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경로를 검증해 보았다. 상담자 WAI와 내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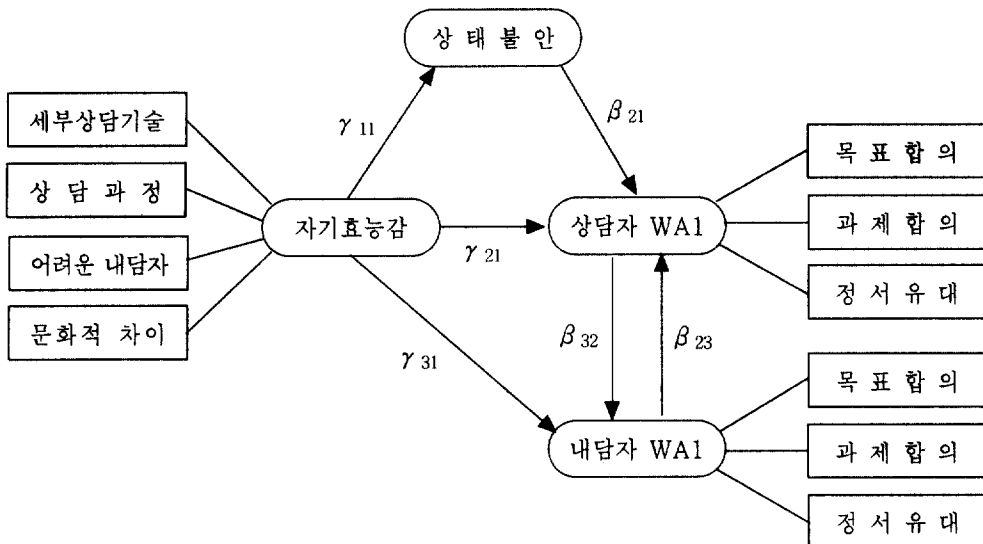


그림 1. 자기효능감·상태불안·상담협력관계 경로 분석 구조모형

표 11. 자기효능감·상태불안·상담협력관계 경로분석

모수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γ_{11}	자기효능감→상태불안	-.78 (-.77)	.12 (.12)	-6.56** (-6.58**)
γ_{21}	자기효능감→상담자WAI	.43 (.44)	.11 (.11)	3.93** (4.17**)
γ_{31}	자기효능감→내담자WAI	-.26 (-)	.36 (-)	-.72 (--)
β_{21}	상태불안→상담자WAI	-.37 (-.35)	.10 (.09)	-3.72** (-3.74**)
β_{23}	내담자WAI→상담자WAI	.16 (.20)	.09 (.07)	1.79 (2.87**)
β_{32}	상담자WAI→내담자WAI	.59 (-)	.44 (-)	1.33 (--)

** p<.01 (2-tailed)

표 12. 상담자 WAI·내담자 WAI간의 상관

	내담자 WAI			
	총점	목표합의	과제합의	정서유대
상담자 WAI				
총점	.37**	.30*	.36**	.31*
목표합의	.36**	.28*	.35**	.30*
과제합의	.18	.15	.21	.13
정서유대	.36**	.29*	.32**	.31**

* p<.05 ** p<.01 (2-tailed)

WAI간의 관계를 알아본 상관분석 결과(표 12 참고)가 인과관계를 예측해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방향에서도 유의미한 인과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서 상담자 WAI에서 내담자 WAI로 가는 경로를 고정시킨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경로분석을 다시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는 상담자의 협력관계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_{23}=.20, p<.01$).

즉, 내담자는 상담협력관계 지각에 있어서 상담자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상담자는 내담자의 지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본 연구가 라포 형성이 중요한 시기인 초기단계의 상담자-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 지각에 있어서 상담자가 민감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의 전반적 과정 및 궁극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초기 단계에서의 상담협력관계 수준을 결정짓는데 상담자의 자기효능감과 상태불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가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상태불안과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상태불안보다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수행적·대리적·사회적·생리적으로 전달되는 다양한 효능감 정보원에 대한 인지적 처리의 산물이라는 Bandura(1977)의 이론적 배경을 지지하는 동시에, 인지변인이 상담과정 및 성과와 관련해서 주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만 이 과정에서 감정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담자 경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상태불안은 낮아지며, 상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은 높아진다는 결과는, 경력수준과 상담협력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변인이라기보다는 자기효능감과 불안 같은 매개요인들의 영향 때문임을 보여준다. 상담자 경력수준과 상담협력관계간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것은 이러한 매개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상담자의 경력이 낮은 경우 상담자 자신은 협력관계를 낮게 지각하는 것에 비해 내담자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급 경력자일수록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상담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낮은 자기효능감은 불

안정한 정서상태를 유발하고,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담기술조차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계 형성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전체 상담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효과적인 상담자 교육을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상담협력관계 하위요인 중 경력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아지는 과제합의 차원에 대해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세부상담기술이 강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내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하는 활동이 상담목표 달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동의인 과제합의 차원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능력과 더불어 시기적절한 구체적인 개입능력이 요구되고, 이런 능력은 많은 훈련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때문으로 추론된다. 다양한 경력수준의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덧붙여, 수련단계에 있는 초보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상담기술 구사능력과 자기효능감 및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상담자 교육에 좀 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 수준 측정이나 상담자와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협력관계 수준 측정은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한 것이어서 주관성 개입이라든가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오류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제3자(수련감독자, 평정자 등)에 의한 직접 관찰, 면접, 평정 등 피험자들의 주관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대학 상담소와 몇 개 상담기관에 연구협조를 부탁해서 연구참여에 동의한 상담자-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잘 가정된 전집으로부터 피험자를 무선으로 표집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포함된 사례수 또한 적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체 상담 지속 회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6회기를 상담 초기로 규정하고 사례 선정과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내담자의 문제 심각도 등에 따라 종결까지의 기간이 사례마다 다르므로 3~6회기를 상담 초기로 규정하여 비교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체 상담 지속 회기가 비슷한 사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회기를 제한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회기의 진전에 따라 변화되는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 수준, 그리고 그에 따른 상담협력관계 수준의 변화를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넷째, 상담협력관계 형성에는 상담자 요인뿐만 아니라 내담자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상담자라도 어떤 내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력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담자의 상담 동기, 문제의 심각성, 상담의 종류와 목적 등에서 유사한 내담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담자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좀 더 세련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혜영(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계현(1990). 카운슬링의 실제. 서울: 성원사.

김남희(1994). 상담초기에 있어서 상담자의 경험 수준과 치료적 작업동맹 형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김동민(1993). 상담초기 작업동맹 형성에 관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언어상호작용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선경(1992). 상담자-내담자 초기 협조관계의 지각과 언어상호작용 유형과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김순영(1999). 내담자의 부모유대 및 성인애착능력이 상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순진(1998). 내담자의 대상관계 수준, 작업동맹 및 상담 중 의사소통방식의 관계.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방기연(1992). 상담초기 작업동맹과 상담자 반응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윤경자(1993). 상담자의 경험과 상담초기 작업동맹 및 상담회기 효율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조영주(1998). 내담자의 초기애착과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작업동맹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Baker, S. B., Daniels, T. G., & Greeley, A. T.(1990). Systematic training of graduate-level counselors: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s of three major program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8, 355-421.

Bandura, A.(1956). Psychotherapists' anxiety level, self-insight, and psychotherapeutic compet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52, 333-337.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4). Recycling misconceptions of perceived self-effica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231-255.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and Company.(김의철 · 박영신 · 양계민 공역.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서울: 교육과학사, 1999.)
- Bergin, A. E., & Jasper, L. G.(1969). Correlates of empathy in psychotherapy: A repl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4, 477-481.
- Bergin, A. E., & Solomon, S.(1970). Personality and performance correlates of empathic understanding in psychotherapy. In J. T. Hart(Ed.), *New directions in client-centered therapy*(223-236). Boston: Houghton Mifflin.
- Bordin, E. S.(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Bower, G. H.(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Conner-Greene, P. A.(1993). The therapeutic context: Preconditions for change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30, 375-382.
- Epstein, S.(1972). The nature of anxiety with emphasis upon its relationship to expectancy.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Foreman, S. A., & Marmar, C. R.(1985). Therapist actions that address initially poor therapeutic alliances in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2, 922-926.
- Friedlander, M. L., Keller, K. E., Peca-Baker, T. A., & Olk, M. E.(1986). Effects of role conflict on counselor trainees' self-estimate, anxiety level, and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356-364.
- Gelso, C. J., & Carter, J. A.(1985). The relationship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omponents, consequences and theoretical antecedent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3, 155-243.
- Hartley, D. E., & Strupp, H. H.(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M. Masing(Ed.),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Hayes, J. A., & Gelso, C. J., Van Wagoner, S. L., & Diemer, R. A.(1991). Effects of therapist-trainees' anxiety and empathy on countertransference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7, 284-290.
- Hill, C. E., & Corbett, M. M.(1993). A perspective on the history of process and outcom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3-24.
- Horvath, A. O., & Greenberg, L. S.(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AI.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23-233.
- Johnson, E., Baker, S. B., Kopala, M., Kiselica, M. S., & Thompson, E. C.(1989). Counseling self-efficacy and counseling competence in prepracticum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8, 205-218.
- Kelly, K. R., Hall, A. S., & Miller, K. L.(1989). Relation of counselor intention and anxiety to brief counseling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58-162.
- Kirsch, I.(1995). Self-efficacy and outcome

- expectancy. In J. E. Maddux(Ed.), *Self-efficacy, adaptation, and adjust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Plenum
- Kivilghan, D. M.(1990). Relation between counselors' use of intentions and clients' perception of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27-32.
- Kivilghan, D. M., & Schmitz, P. J.(1992). Counselor technical activity in cases with improving working alliances and continuing-poor working allia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32-38.
- Kokotovic, A. M., & Tracy, T. J.(1990).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phase of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6-21.
- Larson, L. M., Suzuki, L. A., Gillespie, K. N., Potenza, M. T., Bechtel, M. A., & Toulouse, A. L.(199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105-120.
- Locke, E. A., & Latham, G. P.(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Luborsky, L., Cris-Cristoph, P., Alexander, L., Margolis, M., & Cohen, M.(1983). Two helping alliance methods for predicting outcomes of psychotherapy: A counting signs vs. A global rating for method.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1, 480-491.
- Mallinckrodt, B.(1991). Client's representations of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s, social support, and form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01-409.
- Mallinckrodt, B., Coble, H. M., & Gantt, D. L. (1995). Working alliance, attachment memories, and social competences of women in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79-84.
- Mallinckrodt, B., & Nelson, M. L.(1991). Counseling training level and the form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mar, C. E., Horowitz, M. J., Weiss, D. S., & Marziali, E.(1986).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alliance rating system. In L. S. Greenberg & W. M. Pinsof(Eds.), *The psychotherapeutic process: A research handbook* (367-390). New York: Guilford Press.
- Martocchio, J. J.(1994). Effects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anxiety, self-efficacy, and learning in training.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6), 819-825.
- Marziali, E.(1984). Three viewpoints on the therapeutic alliance: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27, 417-423.
- Marziali, E., Marmar, C., & Krupnick, L.(1981). Therapeutic alliance scales: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to psychotherapy outc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39, 405-409.
- Moras, K., & Strupp, H.(1982). Pretherapy interpersonal relations, patients' alliance, and outcome in brief therap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9, 405-409.
- Nutt-Williams, E., Judge, A. B., Hill, C. E., & Hoffman, M. A.(1997). Experiences of novice therapists in prepracticum: Trainees', clients' and supervisors' perceptions of therapists' personal reac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390-399.

- Pipper, W. E., Azim, H. F. A., & Joyce, A. S.(1991). Quality of object relationship vs. interpersonal functioning as predictors of therapeutic alliance and psychotherapy outcom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9, 432-438.
- Reandau, S. G., & Wampold, B. E.(1991). Relationship of power and involvement to working alliance: A multiple-case sequential analysis of brief 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07-114.
- Ridgway, I. R., & Sharpley, C. F.(1990). Multiple measures for the prediction of counselor trainee effectiveness.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4, 165-177.
- Ryan, E. R., & Cicchetti, D. V.(1985). Predicting quality of alliance in the initial psychotherapy interview.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717-729.
- Sharpley, C. F., & Ridgway, I. R.(1993).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elf-efficacy as a predictor of trainees' counseling skills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ing*, 21, 73-81.
- Sipps, G. J., Sudgen, G. J., & Faiver, C. M.(1988).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verbal response type: Their relationship to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397-401.
- Spielberger, C.(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Wood, R. E., & Bandura, A.(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

Contribution of Counselor Self-Efficacy and State-Anxiety to the Working Alliance in the Early Stage of Counseling

Su-Hyeon Hong Hae-Rim Choi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counselor's self-efficacy and state-anxiety, in the early stage of counseling. Counselors completed measures that assessed the level of self-efficacy, state-anxiety and the strength of working alliance, and their clients completed a measure that estimated the strength of working alliance, between 3rd and 6th counseling s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mined in 68 counselor-client dyads were as follows:

1. Counselor assessments of the working allia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elf-efficacy,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state-anxiety.
2. Significant difference was revealed in the counselor assessments of the working alliance, the level of self-efficacy and state-anxiety by the counselor experience level. Skilled counselors showed stronger percepts of counseling self-efficacy, less state-anxiety, and higher counselor rated working alliance, compared with novice counselors.
3. Compared with counselor's state-anxiety, percepts of counseling self-efficacy had more directive influence on counselors' perceptions of the working alliance.
4. Counselors' perceptions of the working alliance were affected by the clients' perspectives on the working alli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unselors' feelings and perceptions did interfere with their ability to provide maximally effective counseling.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counselor training are important. The theory of self-efficacy predicts that counselor's behaviors, thoughts, and emotional reactions in client interviews would be in part determined by her or his percepts of counseling self-efficacy. Although this study was not initially planned to examine the aspect of individual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the trainees may have been at very different levels of expertise and self-efficacy and, therefore, may have had very different training needs. From the present study, it cannot be definitively said that differences were due to experience level, personal style, or other variables. However, the study does raise possible considerations for counselor training in terms of figuring out how to best meet the needs of trainees at very different levels of experience. Relatively inexperienced trainees may need more basic skills training as well as techniques to help them deal with their negative perceptions and anxiety, whereas more experienced trainees may need more help with confidence building.